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비즈니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문화·관광 전통과 첨단 신기술을 접목한 '서커스 쇼'의 도시로 조성

사회·복지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기반 'E-Health 카드' 출시

환경·안전 예술가와 협력해 환경문제를 알리고 행동을 촉구하는 프로그램 시행

도시교통 전기차 이용을 장려하고자 세금 면제 및 보조금 지급

도시계획·주택 14차 5개년 계획 기간 공공임대주택 40만 채 건설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뉴욕	윤규근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샌디에이고	김민희
샌프란시스코	박신아
시카고	강기향
올랜도	박혜진
워싱턴 D.C.	이정근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시아·아프리카〉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싱가포르	이은주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자카르타	박재현
도쿄	이선인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상하이	문혜정
충칭	모종혁
칭다오	강경이
나이로비	한 울

〈유럽〉

암스테르담	장한빛
베를린	신희완
	유진경
	홍남명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하노버	이희재
스톡홀름	허윤희
바르셀로나	박정수
	진광선
런던	이용훈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보르도	김준광
파리	김나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비즈니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미국 오스틴시 / 환경·안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Austin)시는 도시 내의 순환경제¹⁾ 실현을 위한 비즈니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리버스 피치 컴페티션([Re]verse Pitch Competition)’을 2015년부터 개최해오고 있음.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발굴 및 성장을 지원. 이는 오스틴시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2040년까지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의 목표 달성에 기여

배경 및 목적

- 오스틴시는 2040년까지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음
 - 제로 웨이스트 목표 달성을 위해 도시 내의 기업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의 처리가 시급
 - 시는 기업의 부산물을 다른 기업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오스틴 매터리얼 마켓 플레이스(Austin Materials Marketplace)’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로 잘 연결되지는 않음
- 부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는 비즈니스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리버스 피치 컴페티션([Re]verse Pitch Competition)’을 개최
 - 경진대회를 통해 폐기물로 버려지던 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시는 폐기물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경진대회에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개발할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오스틴시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1)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란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경제 시스템으로 생산-소비-폐기의 선형적인 물질 흐름이 아니라 소비 후 폐기하지 않고 다시 자원으로 투입되는 순환적 물질 흐름을 지향하는 경제 시스템

주요 내용

- 市の 주도로 생산 원료인 부산물을 제공할 기업과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참가자를 모집
 - 부산물을 제공할 기업은 약 90초의 비디오나 2~3개의 사진 등을 통한 부산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청. 부산물을 제공할 기업으로 선정되면 부산물의 양, 질, 가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 2022년 선정된 생산 원료는 우유갑, 방탄조끼, 샘플 및 조각 원단, 연구실에서 사용하던 플라스틱 박스 등임
 - 생산 원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
 - 제시된 재료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공모한 후, 최종적으로 4개 팀을 이노베이션 펠로우(Innovation fellow)로 선발
 - 심사 기준은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제로 웨이스트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임
- 선발된 펠로우는 상금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체화
 - 선발된 펠로우에게는 상금 4,000달러를 포함해 총 16,500달러 상당의 혜택이 제공
 - 이 혜택에는 액셀레이터(accelerator) 프로그램도 포함
 - 멘토링을 통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2022년 8월 ‘서큘러 오스틴 쇼케이스(Circular Austin Showcase)’에서 발표할 예정
 - 2021년의 경우 버려지는 원단으로 나비넥타이를 만드는 프로젝트, 버려진 플라스틱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가드닝(gardening)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 가든을 만드는 프로젝트 등이 선정

정책 평가

- 도시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市가 직접 자원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
 - 장기적으로 도시의 폐기물 저감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市와 기업 모두 윈윈하는 효과를 기대

<https://www.austintexas.gov/news/entrepreneurs-and-innovators-invited-compete-city-austins-reverse-pitch-competition-0>

<https://reversepitch.org/>

<https://www.waste360.com/waste-reduction/austin-looks-reverse-its-waste-intake>

이 경 선 통신원, kylee.greenery@gmail.com

전통과 첨단 신기술을 접목한 ‘서커스 쇼’의 도시로 조성

중국 충칭시 / 문화·관광

중국은 고대부터 벌였던 각종 기예와 곡예를 전승하고, 아크로바틱 체조 기예와 공중 곡예를 특화시킨 서커스를 공연하면서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충칭시는 중국 최대 규모의 서커스 전문공연장을 개관해 ‘마한지도·극한쾌락Show’를 정기 공연 중임. 첨단 신기술을 동원해 대규모 판타지 쇼를 연출하면서 ‘서커스 쇼’의 도시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서커스에 대한 이해와 인식

- 서커스는 인간이 모든 신체 부위를 이용해서 벌이는 여러 가지 기예와 마술, 공중 곡예 등과 동물의 묘기를 버라이어티하게 보여주는 공연 예술
 - 서구에서는 로마제국의 최전성기에 황제와 귀족들이 즐겼던 버라이어티 쇼를 기원으로 함
 - 현대적인 서커스는 19세기에 피니어스 T. 바넘이 만든 서커스단 링글링 브러스 앤 바넘 앤 베일리가 ‘지상 최대의 쇼’라는 슬로건으로 공연하면서 정착되어, 20세기에 미국과 유럽에서 큰 인기를 구가했음
 - 바넘은 청년기와 중년기에 정치인과 기업가로 활동했고, 60대에 서커스 사업을 시작하여 오늘날 ‘위대한 쇼맨’이라 추앙받고 있음
 - 바넘과 초창기의 서커스 공연을 다룬 영화 <지상 최대의 쇼>는 1953년 미국 아카데미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
- 한국에서는 서커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면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음
 - 한국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서구의 공연예술로 유입되어 1950~60년대에 성업했으나, TV 등 대중 미디어의 보급으로 급속히 쇠퇴
 - 1991년 심주희 감금 학대 사건¹⁾으로 서커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면서 외면을 받음
 - 현재 마지막 남은 동춘서커스단은 서울시 금천구에 사무실을 두고,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에서 공연하고 있음

1) 서커스단에 팔린 심주희가 어릴 때부터 맞아가며 강제로 묘기를 배워 공연했던 사건. 하지만 훗날 어머니에 의해서 팔렸고, 각계각층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심주희가 아닌 어머니가 독차지했던 사실이 밝혀져서 큰 충격을 주었음

기예와 곡예를 특화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한 중국

- 중국은 고대부터 인간이 벌였던 각종 기예와 곡예를 오늘날까지 전승시키고 발전시켰다고 해서 ‘잡기(雜技)’라고 부름
 - 한대(漢代)에는 백희(百戲), 수·당대에는 산락(散樂)이라 불렀고, 각 시대의 서적, 벽화, 그림 등에 일반대중까지 잡기를 즐기는 모습이 묘사
 - 1950년에 중국잡기단이 설립되면서, 당시 총리였던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서커스 및 유사한 기예를 모두 ‘잡기’로 통칭해서 부르게 했음
- 중국의 서커스는 인간의 아크로바틱 체조 기예와 공중 곡예를 특화하고 극대화시켜 연출하는 데 강점이 있음
 - 대부분의 서커스 단원이 어릴 때부터 체조 선수로 육성되어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고, 일부 단원은 발레를 배우다가 전업해서 표현력이 뛰어난
 - 중국 내 31개 성(省)·시(市)·자치구(自治區)와 주요 대도시가 잡기단을 운영해, 단원들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고 수준 높은 서커스 공연을 펼침



[사진] 중국이 가장 강점을 갖는 서커스의 총총이 곡예 ‘희수(滙水)’ (출처: 우한잡기예술단)

- 본인의 의지와 부모의 동의 아래 단원을 뽑아 훈련시키기 때문에 감금 학대 등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음. 단원 입장에서는 체조 선수와 발레 단원으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해 잃어버릴 수 있는 기술과 재능을 서커스에서 계속 익히면서 성장시킬 수 있고, 새 일자리를 찾아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점이 큼
 - 서커스 단원은 경제적 수입이 많고 해외 진출도 용이해서 유명 서커스단에 입단하는 게 큰 영광임. 현재 동춘서커스단에서 활동하는 단원 대부분도 중국인임

- 금세기 들어 서구에서는 동물 학대 논란으로 서커스가 큰 타격을 받았으나, 중국은 아크로바틱 체조 기예와 공중 곡예에 특화되어 이런 추세와 무관

‘서커스 쇼’의 도시를 노리는 충칭시의 노력

- 충칭(重慶)시 정부는 공익적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양쯔강(長江) 변에 5억 위안을 투자해서 2016년에 서커스 전문공연장을 개관
 - 충칭국제마희성(馬戲城)은 중국 내륙에서 유일하고, 전체 면적이 4만 1,513㎡에 달해서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커스 전문공연장임
 - 좌석은 3면으로 1,498개가 있고, 입석까지 포함할 경우 한꺼번에 1,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음
 -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충칭국제마희성 앞 광장에서 서커스 체험, 마술 학교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 충칭시를 서커스 쇼의 도시(馬戲之城)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획임
- 충칭국제마희성을 개관한 뒤 충칭시는 충칭국제마희성잡기단을 새로이 창단해 ‘마환지도·극한쾌락(魔幻之都·極限快樂)Show’를 정기적으로 공연
 - 본래 충칭시에는 1951년에 창단한 충칭잡기예술단이 존재했음. 하지만 서구의 버라이어티 쇼 방식과 첨단 신기술을 접목해 ‘마환지도·극한쾌락Show’를 새로 기획하고 개발하면서 충칭국제마희성잡기단을 창단
 - ‘마환지도·극한쾌락Show’는 규모가 큰 충칭국제마희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첨단 조명과 레이저, 홀로그램 등을 동원해서 대규모 판타지 쇼를 연출
 - ‘마환지도·극한쾌락Show’는 원래 평일 러닝 타임(running time)이 1시간 45분이었고, 중간에 10분 쉬는 시간이 있었음.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러닝 타임을 50분으로 축소하는 대신 평일에 2차례로 나눠 공연
 -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쇼가 끝난 뒤 가족 단위 관객은 무대에서 단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사진을 찍는 등 흥겨운 잔치판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함

<https://baike.baidu.com/item/中国杂技>

<https://baike.baidu.com/item/魔幻之都·极限快乐Show>

<https://baike.baidu.com/item/重庆国际马戏城>

http://whlyw.cq.gov.cn/zwx_221/wlyw/202104/t20210426_9219050.html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기반 ‘E-Health 카드’ 출시

인도 델리 NCT¹⁾ / 사회·복지

델리 NCT 정부는 마이데이터²⁾ 기반 ‘E-Health 카드’를 출시해 2022년 상반기에 주민들에게 발급할 예정임. 주민들은 이를 모바일 앱과 연계해 자신의 진료정보를 열람하고 의료기관을 예약할 수 있으며, 의료진은 구축된 건강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의료보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정책적 배경

- 인도인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의료정보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확대
 - 건강정보를 열람하는 데 있어, 각 정보가 의료기관에 산재해 있고 직접 방문해야 하는 복잡한 행정시스템으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
- 건강정보 통합 관리를 목적으로 행정부처, 의료기관 등의 보건복지 주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 조성 필요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건강정보관리시스템(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만 18세 이상 주민 1,500만 명을 대상으로 ‘E-Health 카드’를 2022년 상반기부터 발급할 예정
 - 델리 NCT 정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1억 4천만 루피의 예산 투입을 승인하였으며, 2022년 1월에 카드발급 대행업체를 선정해 관련 지원센터를 구축 중임
- 주민이 E-Health 카드를 신청하면 우편으로 실물 카드 및 모바일용 QR코드가 발송되며, 개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성인과 별도로 구분해 보호자 Health 카드와 연동시킬 예정이며, 영유아는 부모와 자동으로 연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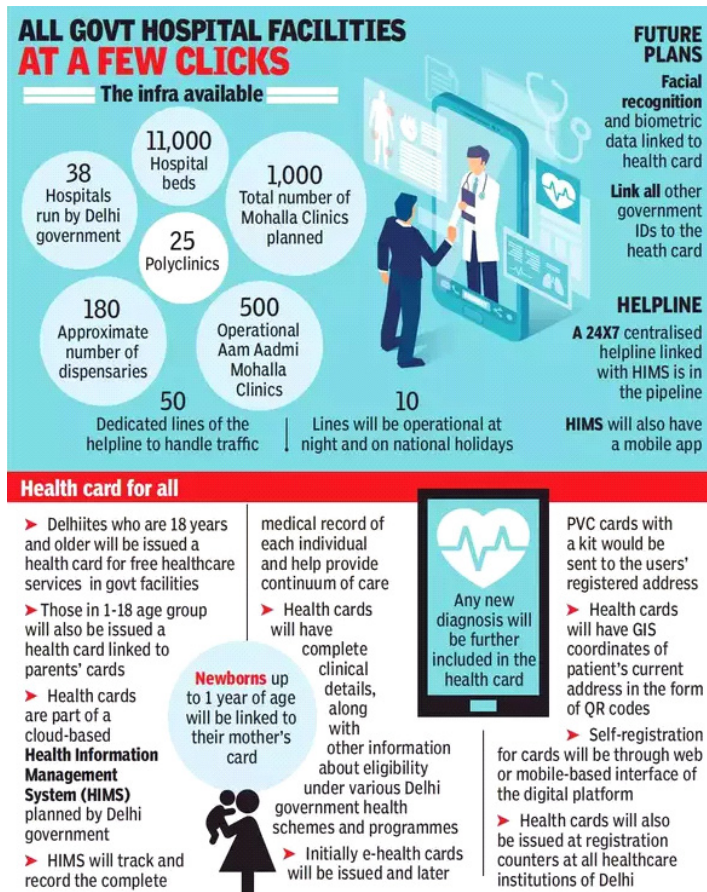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시가 인도의 수도

2) 개인이 정보관리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개인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

- E-Health 카드 발급 후 QR코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 개인 건강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도 개인 동의를 거쳐 진료할 때 활용 가능
 - 애플리케이션에서 정부의 건강 프로그램, 의료기관 정보 등 부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 예약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
- 개인별 검진, 진료, 수술, 투약, 접종 등 의료기록과 함께 병원 예약일정 등 정보를 축적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정보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됨
 - 기존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의료 데이터가 자동 업데이트될 예정
- 현재는 정보 공유가 공공병원만 가능하지만, 단계적으로 지역 내 민간병원으로 확대할 예정
 - 카드 복제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암호화도 추진

정책 평가

- 건강 정보 시스템을 하나의 정보 플랫폼으로 통합 관리해 개인이 여러 곳에 흩어진 건강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데이터를 제공 또는 직접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 개인의 동의하에 의료진이 개인의 건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의료보건의료 환경 개선에 긍정적
- 수집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기업의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신기술과 연계해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인프라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공공 데이터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건강, 임상 통계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의료보건 정책 수립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그림] E-Health 카드 홍보안내문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delhi-news/digital-health-card-may-be-rolled-out-by-march-2022-delhi-cm-kejriwal-101625129665756.html>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delhi-news/health-cards-for-all-delhi-residents-to-be-launched-a-head-of-mcd-polls-101645379231445.html>

<https://www.moneycontrol.com/news/trends/health-trends/delhi-govt-to-issue-health-cards-to-residents-project-gets-cabinet-nod-7547831.html>

<https://www.timesofindia.indiatimes.com/city/delhi/e-health-card-rollout-likely-in-feb/articleshow/88399729.cms>

<https://www.timesofindia.indiatimes.com/city/delhi/health-card-for-all-govt-checks-pulse/articleshow/85722460.cms>

예술가와 협력해 환경문제를 알리고 행동을 촉구하는 프로그램 시행

미국 휴스턴시 / 환경·안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Houston)시는 예술가와 협력해 환경문제를 알리기 위한 ‘휴스턴 인스피라(Houston Inspira)’ 프로그램을 시행.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휴스턴 내 5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예술가와의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의 환경문제를 알리고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목적.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작품은 휴스턴시의 2023년 공중보건 캠페인에 활용할 계획

배경 및 목적

- 휴스턴시는 산업시설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
 - 2019년 기준 휴스턴의 연간 미세먼지(PM2.5) 농도는 미국 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표준인 $12\mu\text{g}/\text{m}^3$ 는 충족하였지만, 세계보건기구 표준($10\mu\text{g}/\text{m}^3$)보다는 높음
 - 거주지역에 따라 대기오염 피해에 차이가 큼
 - 커뮤니티에 따라 기대수명이 최대 24년 정도 차이가 남
 - 이에 대기오염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변화를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일이 중요
- 휴스턴시는 2021년 10월 EPA로부터 공중보건 홍보활동을 위한 지원금 200,000달러를 받음
 - 휴스턴시는 이 지원금으로 예술가들과 협력해 대기오염 문제를 알리는 ‘휴스턴 인스피라(Houston Inspira)’ 프로그램을 시행
 - 시는 이미 코로나19 초기에 예술가들과 협력해 마스크 착용을 촉구하는 ‘마스크 업! 휴스턴(Mask-Up! Houston)’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음

주요 내용

- 휴스턴 인스피라(Houston Inspira) 프로그램 대상 지역 선정
 - 대상 지역은 대기오염 피해가 크면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5개의 커뮤니티
 - 에이커스 홈스(Acres Homes), 어리프/웨스트우드(Alief/Westwood), 캐시미어 가든스(Kashmere Gardens), 니어 노스사이드(Near Northside), 세컨드 워드(Second Ward) 지역이 선정

- 휴스턴 인스피라 프로그램에 참가할 예술가 모집
 - 미술가, 음악가, 극작가, 댄서, 작가 등 모든 크리에이티브가 참여할 수 있음
 - 대상 지역에서 살거나 일하고 있는 예술가를 우선 선정
 - 선정된 예술가는 각각 10,000달러를 지원받아 6개월간 커뮤니티와 협력해 작품을 완성
 - 작품은 커뮤니티의 환경문제를 보여주고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
 - 선정된 예술가는 6개월간 월 1회 총 6회의 이벤트를 개최해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커뮤니티의 참여를 촉진하며, 최종 보고서를 완성해야 함
- 프로그램 일정 및 향후 계획
 - 참여 예술가는 2022년 4월 말에 발표하고, 5월에 프로그램 시작을 알리는 이벤트를 계획
 - 참여 예술가와 커뮤니티는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12월 까지 최종 보고서를 완성해 보고
 - 최종 완성된 작품은 2023년 휴스턴시 공중보건 캠페인에 활용

정책 평가

-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향상하고, 시민들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휴스턴시는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자원을 적절히 활용
 - 이 프로젝트를 위해 휴스턴시의 문화, 환경, 보건 관련 부서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환경단체와도 협력
 - 휴스턴시에는 많은 미술관과 예술가들이 있으며, ‘마스크 업! 휴스턴’이라는 예술가와의 협업 프로젝트의 성공 경험을 이번 프로그램에 활용

<https://moca.submittable.com/submit/218525/houston-inspira>

<http://www.houstontx.gov/mayor/press/2022/inspira-storytelling-campaign.html>

<https://www.iqair.com/ko/usa/texas/houston>

이 경 선 통신원, kylee.greenery@gmail.com

전기차 이용을 장려하고자 세금 면제 및 보조금 지급

말레이시아 / 도시교통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자가용 소유 비중이 높은 국가로, 현재 대기오염 개선 방안을 강구 중.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2 예산안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입세, 물품세, 도로세를 면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

배경

- 말레이시아의 전기차 시장은 현재 열악한 편이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
 - 말레이시아에서 자동차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37%, 온실가스 배출량의 29%를 차지하며, 연간 연료 소비지출액은 899억 링깃(약 26조 원)
 - 2019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자가용 소유 비중은 93%로, 이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순위
 - 전체 인구 3,260만 명 중 2,820만 명이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
 - 말레이시아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990년 전기차를 처음 도입한 이래 전기차 보급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2030년 총 전기차 보급 목표는 승용차 10만 대, 이륜차 100대, 버스 2,000대, 전기충전소 125,000개
 - 말레이시아는 친환경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와 전기페달보조자전거(Electric Pedal Assisted Bicycle)를 국립 대학에 지원하고, 제주도를 벤치마킹해 랑카위섬을 말레이시아 최초의 저탄소섬으로 바꿀 계획
 - 에너지녹색기술수자원부(Ministry of Energy, Green Technology and Water)는 녹색기술 마스터플랜(Green Technology Master Plan)과 전기자동차 청사진(Electric Mobility Blueprint)을 통해 말레이시아를 전기자동차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
 - 하지만 전기차는 가격이 비싸고 충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판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
 - 말레이시아자동차협회 아이샤 아흐마드(Aishah Ahmad) 회장은 전기차는 15만 링깃(약 4,400만 원)대부터 가격이 형성되어 중하층 소비자가 보유하기 어렵다고 발표

- 2021년 기준 말레이시아 AC 단상 충전소는 500개, DC 콤보 급속 충전소는 9개로 충전시설이 매우 부족. 참고로, 태국의 경우 AC 충전소 1,406개, DC 급속 충전소 771개 설치
- 2021년 한 해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된 차량 50만 8,911대 가운데 전기차 판매대수는 274대로, 전체 자동차 중 0.05% 차지

2022 예산안에 포함된 전기차 지원책

- 전기차 구매 시 수입세, 물품세 면제
 - 2021년 10월 2022 예산안 상정 시 자프룰 퉁구 압둘 아지즈(Zafrul Tengku Abdul Aziz) 재무부 장관은 전기차의 대기오염물질 감소 효과를 강조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모든 전기차의 수입세(Income tax), 물품세(Excise duties), 도로세(Road tax)를 면제하는 방안을 2022 예산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
 - 정부는 전기차 완성차(CBU)는 2023년까지, 국내에서 생산/조립된 차량인 반조립(CKD) 전기차는 2025년까지 수입세와 물품세를 면제하는 방안 포함
 - 현재 말레이시아는 완성차에 10%의 수입세, 65~105%의 물품세를 부과
 - 물품세는 수입품, 제조품 등 특정한 물품에 과세하는 소비세로,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
 -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면 전기차 구매 시 개인 부담이 줄어들 전망
- 도로세 면제 및 보조금 지원
 - 2022 예산안에 따라 전기차 구매 시 도로세 면제 및 보조금 최대 2,500링깃(약 72만 원) 지원
 - 말레이시아는 자동차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도로세를 산정하나, 전기차는 킬로와트(kW)를 기준으로 부과
 - 도로세는 최소 50킬로와트 이하 20링깃(약 5,000원)부터 최대 150킬로와트 이상 1,024링깃(약 30만 원)으로 연간 1회 납부 의무

KEMENTERIAN PENGANGKUTAN MALAYSIA

#KELUARGA MALAYSIA

PELAKSANAAN INSENTIF PENGECUALIAN LKM BAGI KENDERAAN ELEKTRIK DI BAWAH BAJET 2022

BAJET 2022

Selaras dengan pengumuman Kerajaan melalui Bajet 2022, Kementerian Pengangkutan Malaysia melalui Jabatan Pengangkutan Jalan (JPJ) Malaysia akan melaksanakan pemberian Insentif Pengecualian Bayaran Fi LKM ke atas Kenderaan Motor Elektrik

KENDERAAN MOTOR ELEKTRIK

- melibatkan motokar yang dipacu oleh sumber elektrik atau *Electric Vehicle (EV)*
- Tempoh pengecualian dari 1 Januari 2022 sehingga 31 Disember 2025
- Pengecualian fi LKM bagi EV hanyalah melibatkan kenderaan yang dipacu oleh sumber elektrik sepenuhnya sama ada yang dikuasakan dengan Bateri atau *Fuel Cell* sahaja

Pengecualian ini tidak terpakai kepada mana-mana kenderaan motor jenis hybrid yang masih mempunyai enjin pembakaran dalaman sama ada dengan sumber petrol mahupun diesel.

Mana-mana pemilik kenderaan yang terbabit yang telah melesenkan kenderaan mulai 1 Januari 2022, pemilik kenderaan atau wakil boleh hadir ke kaunter JPJ untuk

- Menyerahkan semula LKM dan berhak dibayar rebet dengan apa-apa amaun ditetapkan;
- Membuat pengecualian fi LKM mengikut perincian di atas.

www.mot.gov.my

motmalaysia ministryoftransportmy

Pengangkutan Mampan Nadi Pembangunan Negara
Sustainable Transport The Heart Of National Development

[그림] 2022 예산안에 포함된 전기차 지원책

<https://www.wapcar.my/news/40095maa-600k-cars-sales-target-for-2022-back-to-precovid-days-40095>

<https://paultan.org/2021/10/29/budget-2022-evs-in-malaysia-to-be-completely-tax-free-soon/ht>

<https://www.dsf.my/2021/08/malaysia-charging-infrastructure-as-of-2021/>

<https://paultan.org/2022/01/10/evs-in-malaysia-whats-on-sale-whats-coming-in-2022/>

14차 5개년 계획 기간 공공임대주택 40만 채 건설

중국 충칭시 / 도시계획·주택

2021년부터 중국은 급등한 부동산가격으로 내 집이 없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을 위해 한국의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보장성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음. 2022년에 전국 40개 주요 도시에서 2021년보다 146만 채가 증가한 240만 채의 보장성 임대주택이 건설될 예정이고, 충칭시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에 40만 채를 건설할 계획

중국의 보장성 임대주택에 대한 이해

- 보장성 임대주택(保障性租賃住房)은 중국정부가 급등한 부동산가격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의 주거지 마련을 위해 시세보다 훨씬 싼 임대료로 장기 계약을 해서 공급토록 하는 주택
 - 한국의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하나,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들까지 끌어들여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임대사업을 벌이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보장성 임대주택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규모가 작았음
 -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중국 부동산가격이 급등세를 지속해오자, 2021년 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강력한 집값 안정 대책을 지시하면서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
 - 2021년 6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주요 도시에서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보장성 임대주택과 제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보장성 임대주택 중앙예산 내 투자 특별항목 관리판법(保障性租賃住房中央預算內投資專項管理暫行辦法)’을 발표
 - ‘관리판법’은 ‘주택은 투기가 아닌 거주를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주요 도시에 보장성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무주택 도시민과 청년들의 주택난 해소를 추진 하면서,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기본공공서비스계층의 임대주택 수요를 우선 만족시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명시
 - ‘관리판법’은 보장성 임대주택의 영역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집단건설용지를 이용해 건설한 주택, ▶산업단지 부지를 이용해 건설한 주택, ▶신규 공급된 국유 건설용지를 이용한 주택,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가 유휴 토지를 이용해 건설한 주택, ▶기존 유휴 주택을 이용해 건설한 주택, ▶기타 형식의 주택 등으로 규정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주택 건설사업의 중점 과제

- 보장성 임대주택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중국정부의 주택 건설 사업에 있어 중점 과제가 됨
 - 2021년 11월 주택도농건설부는 2021년 전국 40개 주요 도시에 93만 채의 보장성 임대주택을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1~9월 72만 채가 착공에 들어가서 계획의 76.9%를 달성했는데, 여기에 775억 위안이 투입됐음
 - 전국 도시 중 난징(南京), 우시(無錫), Ningbo(寧波), 포산(佛山), 장춘(長春), 난닝(南寧) 등 6개 도시는 조기에 연간 목표를 달성
 -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도시마다 보장성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마련하고 현재 시행 중
 - 구체적인 계획 목표를 살펴보면, ▶광저우(廣州) 60만 채, ▶상하이(上海) 47만 채, ▶베이징(北京) 45만 채, ▶선전(深圳) 40만 채, ▶항저우(杭州), 시안(西安) 30만 채, ▶청두(成都), 샤먼(廈門) 25만 채, ▶닝보, 포산 20만 채 등의 보장성 임대주택을 신규 건설할 계획
 - 주택도농건설부는 대규모 철거, 증축, 이주를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면서, 보장성 임대주택은 철저하게 영리(營利)보다 공익에 중점을 뒀야 한다고 강조
 - 임대주택 임대료는 매년 인상률이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사진] 보장성 임대주택 단지가 건설되는 현장 (출처: 인민자문뉴스)

충청시는 ‘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40만 채 건설

- 2022년 전국 40개 주요 도시에 건설할 예정인 보장성 임대주택은 240만 채로, 2021년보다 146만 채나 증가
 - 2022년 2월 24일 주택도농건설부는 “2021년에 원래 계획보다 1만 채가 더 늘어난 94만 채의 보장성 임대주택을 건설했다”고 밝히면서, “2022년에 전국 40개 주요 도시가 건설할 계획인 보장성 임대주택은 240만 채”라고 발표
 -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40개 주요 도시의 보장성 임대주택 건설 보조금은 28억 위안으로 책정
- 충청시는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보장성 임대주택을 40만 채 건설하기로 결정
 - 2월 17일 충청시 정부는 “이미 건설한 보장성 임대주택은 119개 프로젝트의 5만 2,000채”라면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내 모두 40만 채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
 - 이는 광저우시, 상하이시, 베이징시에 뒤이어 40개 주요 도시 중 4번째로 많은 규모이고, 선전시와 같음
- 충청시의 보장성 임대주택은 주거 공간을 ▶원룸, ▶방1, 거실1, ▶방2, 거실1, ▶방3, 거실1로 다양하게 해 건설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사핑바(沙坪壩)구의 한 보장성 임대주택 프로젝트는 전체 33층 1개 동인데, ▶원룸은 35㎡로 130채, ▶방1, 거실은 50㎡로 93채, ▶방2, 거실은 60㎡로 217채
 - 현재 충청시에서 보장성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주도하는 기업은 시영(市營) 디찬(地產) 그룹과 충칭건설은행, 최대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인 룽후(龍湖) 그룹 등임

https://www.cqrb.cn/content/2022-02/18/content_366734.htm

<http://finance.yinet.com/2022/02/25/3432520t632.html>

http://www.jjckb.cn/2021-11/02/c_1310284870.htm

<https://finance.sina.com.cn/china/2021-06-02/doc-ikqcfnaz8643579.shtml>

모 중 혁 통신원, jhmo71@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524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2년 4월 25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